

#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7 Number 6 ● 6 2009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어떤 사실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믿는 이유는 우선 그렇게 믿겨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겨지는 이유는 자신의 현재의 세계관에 따라 주위의 사물을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인식세계에 수많은 견해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오고 갔다면 자신의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이 무수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관은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한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 한다. 그런 후에 보이는 모든 세계의 사물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포함된다. 그리고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의미도 정의 한다. 내세의 문제 즉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해다. 그런 면에서 우주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차례대로 기술한 성경은 자신의 세계관 형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어

편 부분도 없다. 또, 한가지 확신하는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의 정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기독인이면 마땅히 성경적인 세계관의 소유자여야만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끼리도 각자의 세계관이 다를까 하는 의심이 생긴다. 그 이유는 결국 성경에 대한 이해가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로 쓸 수 있을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경의 처음 시작 부분(창세기 1장-11장)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견해일까? 처음은 오래 되어서 별로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나쁜 버릇이 언제부터,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찰스 라이엘

보이는 가시세계 즉 지질학적, 생물학적, 천문학적 실제 모습에 대해 성경이 너무나 분명히 기술해 놓았는데도 자기 마음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경박한 견해로 성경의 기록을 도전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기존의 격변을 통한 지질학 이해에 도전하며 지구의 과거 역사를 자기의 임의로 해석 기술해서 출판한 찰스 라이엘(1830)의 “지질학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동일과정설적인 지질과정을 주장하였는데 서로 친분이 두터웠던 12세 연하인 찰스 다윈을 때



찰스 다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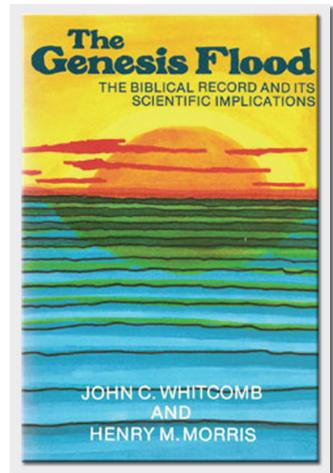
로시켰다. 동일과정설의 철학을 근거로 다윈(1859)은 생물학적 실존을 임의로 해석해서 생물 진화론을 소개하게 되었다. 그 후 이들의 반성경적인 세계관은 드디어 19세기 중엽의, 어떻게 보면 현대의, 가장 중요한 인식의 혁명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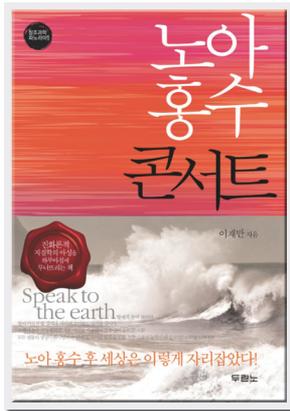
그 후 100여 년이 지나 1961년에 이들의 가설에 도전한 존 윗컴 박사와 헨리 모리스 박사의 역작 “창세기 대홍수”(The Genesis

Flood)는 라이엘과 다윈의 반성경

적인 세계관에 대항하여 지질학적인 실존을 성경적으로 다시 재조명하도록 도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려는 시도인 현대 창조과학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후 47년이 지난 금년 4월에 참으로 귀한 책이 한국어로 출판되어 나왔다. 이 책은 내용이 너무나 귀하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그대로 서술되어 있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기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책이다. 바로 지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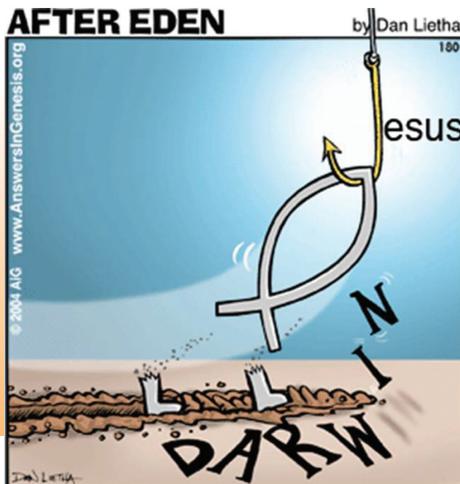
학과 신학을 공부한 이재만 부회장의 두번째 저서 “노아홍수 콘서트”이다.

100여 회를 손수 그랜드캐년 등의 장엄한 지질학적 증거 앞에서 시간이 아니고 성경적인 격변의 사건을 통해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선포할 때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설명이 왜 그렇게 신빙성 있는 설명일까? 이 책 “노아홍수 콘서트”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

이 책은 노아홍수의 단일 격변의 엄청난 여파에 대해 지구 전체의 격렬한 진동으로 땅의 흙이 액화되는 상태를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것로부터 시작한다. 이어 지질계통표의 허구에서 화석에 대한 이해와 동위원소의 조작 사진들을 거치며, 더 나아가 독자의 생각의 틀(패러다임)이 바뀌어 바람직한 성경적인 세계관이 형성되는 참으로 중요한 영혼의 대격변이 일어나도록 한다.

이때 비로소 독자들은 오해로 말미암아 굽어진 길과 산과 계곡이 평탄케 되어 어떤 이에게는 주님을 맞게 되는 첩경이 예비 될 것을 확신한다. 확실히 이 “노아홍수 콘서트”는 외치는 자의 소리요 현대 창조과학 사역의 한 면모를 단적으로 기술한 저서이다.

최인식 회장 | 의사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마 4:19

# 추천의 글



그 동안 이재만 선교사와 협력해온 것은 하나  
 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즐거움이며 놀라운  
 축복이었다. 그가 소속된 창조과학선교회는 창  
 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고백을 낳고 있다. 그의 과학적 진행, 특  
 별히 그가 쓴 책과 인도했던 많은 그랜드캐년 탐  
 사여행은 아주 효과적이며, 어떤 다른 사람도 이  
 를 수 없을 정도로 창조와 홍수지질학의 진실을  
 가르쳐 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창조의  
 강한 증거를 직접 봤던 것만큼  
 그의 사역은 주님을 위한 영원  
 한 많은 열매들을 낳았다.  
 - 존 모리스 (지질학 박사, 미  
 국창조과학연구소 소장)



이재만 부회장과 모리스 박사 부부

본서는 지난 200년의 현대지질학과 진화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능력 있는 책이다. 이재  
 만 선교사는 백 회 이상의 그랜드캐년 창조과학  
 탐사를 손수 인도한 열정적인 기독교인이요, 첨단  
 지질학의 전달자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저자는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것을 막는 모든 이론을  
 폐하여 복종시키는 이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  
 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창조론자, 진화론자  
 모두가 필독해야 할 책이다.  
 - 최인식 (미국 클리어워터 통증 전문병원 의사,  
 창조과학선교회 회장)

지질학도며 동시에 신학적 훈련도 함께 받은  
 저자는 우리가 밟 딛고 서 있는 이 지구의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특히 성경기록  
 과 관련해서 이 땅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지를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책임자임에 틀림이  
 없다. 이 책은 지질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읽  
 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땅의 이야기

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 가고 있다.

흔히들 생물학의 주제로만 생각하기 쉬운 진  
 화론이 사실은 동일과정설이라는 패러다임 위에  
 세워진 지질학에 깊게 뿌리를 박고 있으며, 그 이  
 론의 성격 상 오래된 지구의 연대를 필연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해서 새삼 발견하게 된다. 전 지구에 걸쳐 광범  
 위하게 펼쳐져 있는 노아홍수의 증거들은 성경  
 의 기록들을 입체적으로 생생히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는 (고후  
 10:5)’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지구의 기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 과학과 신앙의 조화를 이  
 루고자 노력하는 분들, 성경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은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다윈이 주장한 점진주  
 의식의 혹은 타협적인 진화론적 해석에 대하여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도전이 될 것이다.

- 김 정훈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 한국창조과학  
 회 부회장)

지질학과 구약학 뿐 아니라 창조과학을 전공  
 한 저자는 날카로운 학문적 접근을 통해 마치 노  
 련한 탐정수사관처럼 노아홍수를 파 헤치지만,  
 그의 접근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언인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저자는 전지구적인 격변인 노아  
 홍수에 대해 최근의 학문적인 정보들을 제공하  
 는 동시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  
 명하고 있다. 아울러 성경적 창조에 반하며 최근  
 에 주장되고 있는 유사 창조론, 예를 들어 점진적  
 창조론이나 다중격변론 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반증들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이상 창조과학사역을 함께 한 동료자며 주 안에 형제로서 저자의 신실함뿐 아니라 창조과학 전문성을 알고 있기에 이 책을 모든 독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오래된 지층과 화석의 망상에서 벗어나 성경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분명한 증인으로 인해 통쾌함과 동시에 시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차성도 (강원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당신이 진화를 믿든지, 아니면 창조를 믿든지, 잃어버려진 역사에 대해서는 오직 한가지 답만 존재한다는 것에 우리 모두는 동의한다.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도록 하는 수많은 과학적으로 타당한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곳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감을 느꼈는데... 그곳은 바로 '성경' 이었다.

- 정상협 (미시건 주립대학 바이오 시스템 공학 교수)

노아홍수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추천한다

- 정성호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저자와 함께했던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지구 과학을 집대성한 학문인 해양학 전공자인 나에게 큰 변화를 주었다. 이 여행을 통해 패러다임이 바뀐 이후에 나는 더 이상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학문적 고민을 하지 않게 되었고, 더 나아가 진화론의 허구성과 노아홍수가 가지는 학문적 가치를 학생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본 저서는 저자가 얼마나 지질학 분야에 정통한지 보여주고 있으며, 학문적 양심에 충실한지 알 수 있게 한다. 독자들도 동일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신운근 (상지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제까지 지질학이 진화론의 대변자였다면, 이 책은 지질학이 창조론의 첨병임을 웅변한다. 지질학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이 책은 창조의 주인이자 증인인 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가슴 벅찬 경험을 안겨 준다.

- 신동복 (공주대학교 지질환경학과 교수)

이 책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독자들, 혹은 믿는 이들에게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 하셨으며 성경이 사실임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할 것이다. 특히 별다른 고민 없이 자신도 모르게 진화론자가 된 이들에게는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 김철운 (광물공학 박사, 미국 모사이회사 수석 엔지니어)

진화론은 이미 우리의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확증된 이론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믿는 이조차 진화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른다. 이 책은 진화론이 껌대기만 그럴듯한 거짓 이론임을 과학적 증거를 통해 살살이 밝히고 있다. 저자는 그랜드캐니언을 통해 '노아 홍수' 가 역사적 사실임을 밝히고 있는데, 신나는 여행을 하는 듯 재미있게 글을 썼다.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년들, 창조론을 단순히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꼭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 하용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탐사여행 | 창조과학학교 | 2세 창조과학 강연 | 책 출간

## 창조과학 탐사여행

4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탐사여행이 시작했습니다. 매달 4-5 회 출발할 정도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 GVCS

4월 17-19일 3일간 한국의 충청북도 보은에 위치한 글로벌 비전 기독교(GVCS)에서 중고등학생들이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믿음이 사실에 기초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솔직히 성경을 읽으면서 못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확실해 졌고, 과학... 진짜 어려워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이해하기 쉬워서 좋았어요”(강지운, 7학년)



GVCS 탐사여행 - 세도나에서

## 남대서양 목회자

4월 20-22일 Georgia와 Florida 주의 목사님들이신 남대서양 목사회(회장: 최병호 목사)의 탐사여행이 있었습니다. 노아홍수에 초점을 맞춘 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 등 3대 캐년을 돌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목사님들께서 창조과학이 각 교회에서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될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특히 2세들에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함께 하며, 오는 8월 28-30일 김선욱 박사님께서 아틀란타 지역에서는 2세들에게 직접 전하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목사님들의 간증은 14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남대서양 목회자 탐사여행 - 브라이스 캐년에서



## 예수전도단

4월 23-25일 LA 예수전도단 DTS팀들이 탐사여행을 참석했습니다. 앞으로DTS 프로그램에 탐사여행을 넣기로 하는 결실도 이어졌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나 사실을 확인하는 이 놀라운 은혜 또한 너무나 특별히 제게 주신 선물인 것 같고 주님께서 네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황지은)



YWAM 탐사여행 규화목 국립공원에서

##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이어져

오는 여름 중단되었던 유학생 탐사여행이 겨울부터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 동안 여섯 차례 서울과 열바인 온누리 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순복음라스베가스교회(담임목사: 강일진)의 후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유학생 탐사여행을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확인토록 하셨습니다. 지난 여섯 번 동안 그랬듯이 유학생들이 성경에 대한 확신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감격적인 순간을 계속해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주위에 많은 유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후원해주신 온누리교회와 이번 탐사여행을 이어지게 해주신 순복음라스베가스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학생 탐사여행은 2010년 1월 4-6일(월-수)에 출발합니다.

## 창조과학학교

다윈 출생 200년과 진화론이 널리 퍼지게 한 다윈의 책 <종의기원>이 출판 된 지 150년이 되어 거의 모든 박물관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올 해 들어 창조주 하나님과 그 분이 하신 일을 배우고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는 창조과학학교가 활성화되고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3일부터 대부분 청년들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West LA 온누리교회(담임목사: 한승진)에서 매주일 오후 1시 15분에 열리게 됩니다. 6월 7일부터는 매주일 오후 2시 15분부터 10주간 동안 LA 온누리교회(ANC, 담임목사: 유진소)에서 열리게 됩니다. 또한 LA 근교에 소재한 대흥장로교회(담임목사: 권영국)는 2006년에도 창조과학학교를 개설한 바 있는데 또 다시 요청을 받게 되어 창조과학 사역이 교회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감사 드립니다. 대흥장로교회에

서 진행하는 창조과학학교는 9월 9일부터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시작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가까운 곳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 8기 창조과학학교는 24명이 등록한 가운데 지난 4월 6일부터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담임목사: 김광태)에서 10주간에 걸쳐 열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선욱 박사의 2세 창조과학 강연

지난 4월 순복음라스베가스교회(담임목사:강일진)에서는 13일부터 19일까지 한 주간에 6일간 창조과학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3일간은 이재만 선교사의 한국어 강연이 있었고 다음 3일간은 김선욱(John Kim) 박사의 2세들을 위한 강연이 계속 되었

습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김선욱박사의 첫 번째 창조과학 강연은 저희 창조과학선교회의 첫 번째 2세에 의한 2세 강연이라 더욱 뜻 깊은 강연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선욱 박사가 강연 후 보내 온 편지 중 일부를 번역한 것입니다. 2세 사역이 활발해 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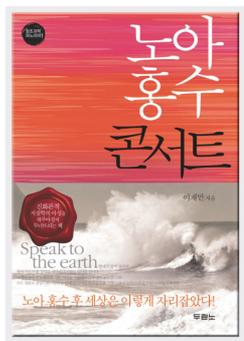
“할렐루야! 기도 감사합니다. 순복음라스베가스교회를 방문한 것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모두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감격스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창조대 진화, 창세기 홍수와 노아의 방주, 홍수 지질학과 화석기록, 공룡과 성경,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서 창세기의 연관성에 대한 다섯 가지 주제의 강연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성경은 그분의 역사이고 그 분의 증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처음부터 실제 역사(literal history)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이들과 만나는 일을 감격이었습니다. 사인도 많이 해 주고, 껴안아 주고, 맑은 눈을 서로 바라보며 나눈 미소들... 하나님 안에 있는 10대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방어할 수 있는 약간의 도구들이 주어졌습니다. 시

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시고 그 분의 영광의 재림 때까지 말씀 안에 자라도록 기도 합니다....”

### 노아홍수 콘서트 출간

지난 4월 17일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책 “노아홍수 콘서트”(이재만 저)가 출간되었습니다(1-5페이지 참고). 하나님의 사랑 옴은 “땅에게 물어 보아라! 땅이 네게 가르쳐 줄 것이



다”(욘 12:8)라고 친구들에게 도전 했습니다. 이 책은 그 대답을 들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만지신 그 땅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Got the book?

미주에서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213-381-1390; 이메일: HisArk@gmail.com; \$20.00/권 + S/H; 10 권 이상 단체 주문은 무료 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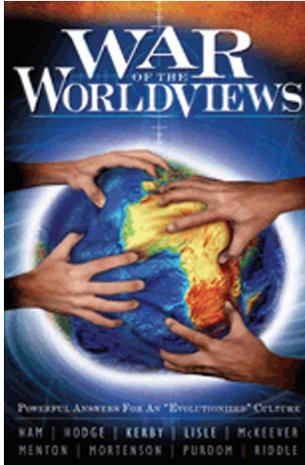
### 창조과학 탐사여행 오픈

빙하시대 탐사여행 (6월 4-6일)에 이어 오는 7월 16-18일(목-토)에도 창조과학 탐사여행 일반 참석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랜드캐년, 세도나, 규화목 국립공원, 페인트드 사막, 모하비 사막 등을 경유하게 됩니다. 이 오픈 탐사여행은 LA 에서 출발하며, 매년 인원이 초과되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 213-381-1390.





# 세계관 전쟁 1



**처음** 이 책을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이 마음에 떠오를 수 있다. “이 따위 것이 뭐가 중요해? “세계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천문학? 생물학? 돌연변이? ‘빅뱅’ ? 이런 건 다 부수적인 문제들이야. 전도나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했다면 반가운 일이다. 이 사회는 지금 문화전쟁에 휩싸여 들어가고 있다: 좌익과 우익의 대결, 낙태에 관한 찬반, 등. TV나 신문 뉴스에서 늘 보는 것이다. 이 모든 싸움의 배경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싸움에 말려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리를 깨닫게 해 줄 수가 있을까?

본 장에서는 이 싸움의 진면목을 알아 보고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 특히 창세기와 창조에 관한 사실로 돌아가는 일이 세계관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 보도록 하자. (이번 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있다. 진화론에 근거하여 수백 만년이라는 주장을 하는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성경적인 기독교를 상대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앗아가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몇 세대를 통해 이 싸움이 점점 확대되고 치열해 짐을 본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원리에 미국이 건국 된 것을 의심 할 수 없다. 사실 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 대부분이 공립 학교에서 기도와 성경읽기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지지했다. 그리고 예수탄생 장면이나 십자가, 십계명을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것을 찬성했다. 동성간의 결혼이나 낙태는 불법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예전처럼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하는 조지 바나는 미국에서 “소수의 거듭난 사람(44%)과 훨씬 더 적은 수의 거듭난 청소년(9%)들이 절대적 도덕률을 믿고 있다” 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 났을까? 왜 지난 세대의 도덕관이 점점 불법으로 판정이 날까? 왜 이런 싸움이 계속되

고 있을까?

기독교적 생각이 깊숙이 파고 들었던 공공 교육제도에서 지금은 하나님, 기도, 성경공부 및 성경적 창조론이 완전히 제거 되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가정의 자녀들의 대부분을 포함하여 많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속 종교로 훈련을 받고 있다.<sup>2</sup>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세뇌되고 있다. 진화론에 의거한 우주학, 지질학 및 인류학을 점점 열심히 배우고 있다. 본질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에 의거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교육을 받음으로 결국 성경의 가르침인 구원과 절대적 도덕기준에

어긋난 가르침을 받고 있다.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미디어도 자녀들을 세뇌하고 있다. TV 쇼, 영화, 만화, 광고 등등이 교묘히 (어떤 때는 과감히) 우리 인생은 연못 찌꺼기로서 수 십억년의 진화과정의 결과 일뿐이라는 진화론사상을 강화하고 있다.

몇가지의 예만 보아도 충분 할 것이다. 아주 진화된 엑스-맨이나 쥬라기 공원과 공룡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사라져가고 있는 관공서의 십계명

“수 백만년”이라는 예들이다. 타임지, 네이처지 및 내셔널 지오그래픽같은 잡지의 표지기사는 진화론이 사실인양 소개하고 있다. 많은 케이블 채널 즉 디스커버리채널, 학습 채널 및 동물의 세계 같은 프로그램이 동물과 사람의 진화를 정기적으로 방영하고 있는 사실을 누가 무시 할 수 있을까?

두 살에서 열 일곱 살에 속하는 자녀들이 매주 19.4시간을 TV 시청에 소모하고 있다(닐슨 미디어 리서치, 2000). 이것은 영화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뒤지거나, 만화나 잡지를 보는 시간을 제외한 것이다. 자녀들은 대부분 진화론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나온 메시지의 홍수에 빠져 있다. 미국에는 지금 사십만 개의 교회와 육천 개의 개봉 영화관이 있다. 어느 쪽이 우리의 문화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불행하게도 할리웃의 작가나 제작자들이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기독교인들의 타협

슬프게도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알게 모르게 진화론적인 아이디어와 타협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격무기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성경에 수 백만년이



라는 것을 첨가하고, 진화론과 기독교가 양립할 수 있다고 가르쳐 왔다. 결과적으로, 이런 지도자들이 이 모든 생각을 접수 하도록 도왔고 문화전쟁을 실제로 불붙인 자들이다. 그 결과는 현 세대가 창세기에 있는 성경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다시 해석 하기 시작 하여 나머지 65권의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도록 문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근원에 관한 내용을 불신할수록 이 세대들은 더욱 나머지 성경의 내용을 불신하게 되는데 이유인즉 결혼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교리가 직접 간접으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쓰여진 역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문과 타협으로 말미암은 직접적인 결과는 동성결혼이나 임신중절 등에 대해 점증하는 도덕투쟁에 잘 반영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사람이 진화론을 믿고 창세기 1 장 에서 11 장의 내용을 역사로 받아 드리지 않으면 앎을 수록 그 나머지의 성경이나 그 역사에 근거하여 세워진 도덕률을 더 배척

하게 된다.

도덕적 상대성을 포함한 세속주의는 기독교와 그 절대적인 도덕률을 정면으로 대항한다. 싸움은 이 두 세계관 간에 벌어지고 있다. 한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다른 한편은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미국이 기독교세계관으로 폭 젖은 문화로 다시 한번 돌아 설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다. 창세기로 시작하여 말씀의 권위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은 가능하다!

중략: 지면상 신지 못한 “싸움에서 이기기” 부분은 [www.HisArk.com](http://www.HisArk.com)의 “세계관 전쟁” 아이콘 참고 바랍니다.

### 싸움에 이기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그냥 이런 말만 할 수는 없다.



## 해결책 이사야 58:12

세상 사람들은 질문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대답을 해 줘야 한다. 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실제 세상과 어떻게 관련이 있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생물학, 천문학, 역사학 그리고 인류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통한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하고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의 질문에 올바른 해답을 할 수 있도록 무장 시켜야 한다. 자녀들이 집을 떠난 후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sup>3</sup>

성경적인 도덕관으로의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기독교인은,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 즉 창세기에 기록 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성경의 권위를 절충 없이 받아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세계관 싸움에서 이길 소망이 없고 한 때 왕성하던 기독교문화가 계속 퇴색해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이 싸움을 이해 하는데 교회는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싸움의

함성을 듣고 깨어나야 한다. 우리는 진화론의 거짓된 바탕과 수 백만년이라는 주장을 공격하고 기독교 도덕률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근본이 되는 이 세계의 진짜 역사를 선포해야 한다.

1. Barna Research Online, The year's most intriguing findings, from Barna Research Studies, December 12, 2000.
2. 중립적인 것이란 없다. 마태복음 12:30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3. 복음적인 가정에서 자란 2/3의 자녀들이 부모를 떠났을 때 교회도 떠날 것이란 통계는 바나 연구소가 추정한 것임. 더 자세한 정보는 State of the Church: 2002 by George Barna를 보라.

출처: War of the Worldviews (2005), Answers in Genesis

## 남대서양 목회자 & LA YWAM 탐사여행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창조과학에 대한 배움도 있었고 훌륭한 경관도 보았지만 이런 것이 함께 제공해 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과학뿐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고 바르게 결합한 탁월한 이재만 선교사님의 강의를 통해 더 많이, 밝게 깨달음을 갖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김용일 목사, 탬파 한인장로교회

그랜트캐년의 암석, 퇴적층을 보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땅, 셋째 날 땅 그리고 노아 홍수의 땅을 보면서 에덴동산에 와 있는 감동과 노아 홍수 심판대 앞에 있는 자신을 보며 큰 감동의 탐사 여행이었습니다.

최병호 목사, 애들란다 베다니 장로교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선포하면서도 증명될 수 없었던 막연한 사실들에 대해서 완전한 해갈을 느꼈습니다. 더욱 창조과학선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믿음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더욱 목회에 정진할 것입니다.

양삼석 목사, 클락스빌 제일장로교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실을 그 사건으로 보고 체험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노아의 사건을 심판과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의 계획도 포함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다시 보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됨을 감사합니다. 살롬!

김삼영 목사, 조지아 장로교회

나는 그동안 진화론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다. 그러나 내 안에 진화론 패러다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지구의 나이가 적어도 수백 만년에서 수 억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조상들의 나이를 그냥 상습적으로 계산해서 지구의 나이를 1만년 이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너무나 과학적 사실(진실)임을 무시한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서 지구연대와 진화론적 가설들이 허구였음을 알게 되었고 과학적으로 창조의 역사(창세기)가 오히려 더 상세히 설명될 수 있음을 깨달으며 내가 갖고 있던 무의

식적 패러다임이 깨어지고, 좀 더 창세기의 과학적, 역사적 연구와 공부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박대웅 목사, 애틀란타 예수 소망교회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가 사실의 역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만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영갑 목사, 애틀란타 복음동산교회

창세기 6장의 사실을 사실로 확인하며,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 있는 계시로 확신 있게 선포케 되었습니다. 진화론의 패러다임에 잡혀 있는 2세 영어권에도 이런 확신이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박성만 목사, 컬럼버스 반석장로교회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패러다임이라는 것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배우고 그것이 진리라고 외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한다는 것에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사역하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당신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신 이재만 선교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 목사, L.A YWAM, DTS

너무나 과학적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성경을 주신 하나님! 만물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 헌신된 전문가들의 돋보임! 난 이제 창조주의 자녀로 살아가렵니다.

김유민, L.A YWAM, DTS

무엇인가? 나의 내면과 생각이 깨끗하게 맑아졌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 가면 서로 무엇인가 깨끗하지 못한 부분 즉 의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

홍로경, L.A YWAM, DTS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나, 사실을 확인하는 이 놀라운 은혜 또한 특별히 제게 주시는 선물인 것 같고 주님께서 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황지은, L.A YWAM, DTS

● 남대서양 목회자(4/20 ~ 22일)와 LA YWAM (4/23~25일) 탐사여행 참가자들의 간증입니다. 다 신지 못한 것은 다음 호에 실을 예정입니다.

2009년 ACT Schedule

- 6/4-6 빙하시대 탐사여행(모집, 213-381-1390)
- 6/7 Bellflower 장로교회 (최우성, 858-877-0327), Bellflower, CA
- 6/7 - 8/9 창조과학학교(매 주일 오후), LA 온누리교회, CA
- 6/8-11 창조과학 탐사여행(시애틀 형제교회, 213-381-1390)
- 6/8-11 창조과학 탐사여행(세계로 선교회, 213-381-1390)
- 6/13 샌디에고 창조과학 박물관 견학 (복음장로교회, 323-244-6983)
- 6/14 W. LA 온누리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213-381-1390), West LA
- 6/14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562-653-0168), Cerritos, CA
- 6/15-18 창조과학 탐사여행(한미준 강사 수련회, 213-381-1390)
- 6/26-28 빙하시대 탐사여행(CBMC, 213-381-1390)
  
- 7/13-15 창조과학 탐사여행(인랜드 순복음교회, 213-381-1390)
- 7/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모집, 213-381-1390)
- 7/23-24 Come Mission 세미나 (이재만, 213-383-5499), L.A, CA
- 7/25-27 창조과학 탐사여행(Come Mission, 213-383-5499)
- 7/31-8/2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공동체, 213-446-2821)
  
- 8/3-5 창조과학 탐사여행(아틀란타 베다니 장로교회, 770-643-1459)
- 8/6-8 창조과학 탐사여행(생수의 강 선교교회, 562-653-0168)
- 8/10-12 창조과학 탐사여행(터헝가 소망장로교회, 818-331-2481)
- 8/17-24 일본 창조과학회(이재만) Tokyo, Japan
- 8/28-9/6 과테말라시티 및 셀라이동용, 630-400-6114), Guatemala
  
- 9/5-7 창조과학 탐사여행(온누리교회, 213-382-5658)
- 9/11-13 시라큐즈 기쁨의 강 교회(세미나, 이재만, 315-727-8111), NY
- 9/14-16 창조과학 탐사여행(CRC 목회자, 562-882-9191)
- 9/18-20 유타 교회 협의회(이재만) Salt Lake City, UT
- 9/28-30 창조과학 탐사여행(일본인 교회, 213-381-1390)
  
- 10/2-4 뉴욕 맨하탄 선교교회(세미나, 이재만, 718-321-7800), NY
- 10/6-8 창조과학 탐사여행(Jama, 213-381-1390)

● 다른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보내주시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